환경과 인간이 더불어 만족하는 에코룸(ECOROOM)

1515655 컴퓨터과학부 임소희

자원 부족, 물 오염, 기후 변화 등의 환경 문제로 환경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2014년 9,56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1,610억 달러의 높은 수익을 전망하고 있다. 환경 사업은 환경 오염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여, 미래를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추구한다. 근대부터 현대까지 환경 보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의 딜레마에 놓였던 인간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는 환경 산업으로 결론을 귀결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환경 산업 시장에 뛰어들었고, 한국도 환경 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와 용수를 다량 소비하는 섬유 산업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연구한 해결법이, 2015년 6월에 발표된 에코룸(ECOROOM) 기술이다.

에코룸 기술은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그리고 품질 면에서 각광받는다. 첫째, 이전 섬유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70%가 절약되어 생산 원가를 30%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염색 공정 시 용·폐수를 40%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일반 생산한 제품에 비해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뛰어나다. 원단이 펼쳐진 상태로 염색과 수세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종합해보자면, 환경 보전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얻는, 환경 산업의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기술협약이 들어오는 건 자연스런 결과이다. 에코룸은 현재 HUGO BOSS 등의 5개 미브랜드, 일본 브랜드 Dakisada 및 국내 브랜드에 약 50여톤의 소재를 공급 중이다. 또한 최근 4월에는 세계 최대 레이온 생산업체인 웨이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 패션 시장에서 에코룸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위의 현황 외에도 세계 패션 소재 전시회로부터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킨다는 긍정적 평가, 기술 협약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에코룸의 사례를 통해 환경 산업의 성장 잠재성과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환경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주된 과제이다. 환경 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환경 기업들의 해외 수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에코룸의 경우 2009년부터 시작된 산업부의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 기반구축사업’이라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며, 기술이 만들어지는데 자그마치 100억원이 투자되었다.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에코룸 기술 개발을 중도 포기하거나 시기가 늦춰졌을 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정보, 실증 등의 역량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에는 한계가 많다.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에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환경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환경 기업들도 친환경적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면 미래에 한국이 환경 산업의 주도자가 될 것이다.